

<제11강>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강:기]) 옷감[온깜](×[옥깜]) 있고[일꼬] (×[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뺨](×[뭉뺨]) 꽃밭[꼇뺨](×[꼭뺨])

< 해 설 >

<조음위치 동화>(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1. 조음위치동화(양순음화, 연구개음화)는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 초성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음운 현상.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수의적).

1) 양순음화

- 치경음이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 규칙 : {ㄷ, ㄴ} → {ㅁ, ㅂ} / ___{ㅁ, ㅂ, ㅃ, ㅍ}

2) 연구개음화

- 연구개음이 아닌 'ㅂ, ㄷ, ㅁ, ㄴ' 등이 연구개음의 영향으로 연구개음인 'ㄱ, ㅇ'으로 바뀌는 현상.¹⁾
- 규칙 : {ㅂ, ㄷ, ㅁ, ㄴ} → {ㄱ, ㅇ} / ____{ㄱ}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피어[피어/피여] 되어[되어/되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1)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의 두 규칙을 통해서 자음의 강도(또는 동화력)는 '치경음<양순음<연구개음'으로 나타난다. 설정성 자질을 기준으로 하면 '[+설정성] < [-설정성]'으로 나타난다.

<‘이’ 모음 동화>

1. 개념 :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현상으로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 전설모음 ‘ㅣ’ 앞뒤에서 모음이 변하는 현상.

2. 환경

1) 이-역행동화/움라우트 : ‘후설모음 + [C, -설정성] + 이/ㅣ’ 연쇄에서 후설모음 [ㅏ, ㅑ, ㅓ, ㅕ]이 각각 [ㅐ, ㅒ, ㅖ, ㅜ]로 바뀌는 현상.

예) 손잡이→[손잡이], 먹이다→[멕이다], 고기→[괴기], 학교→[핵교]

○ 규칙 : [+후설모음] → [-후설모음] / ____ [C, -설정성]{y/이}

2) 이-순행동화 : ‘이’ 소리의 뒤에서 : [ㅏ, ㅓ] → [ㅑ, ㅕ] ==> 순행동화

예) 기어[기여], 먹이였다[머기열따], 미시오[미시요], 당기시오[당기시요]

(참고) 1. 이중 모음이 된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

(참고) 2. 학교 문법에서는 ‘이-순행동화’로 다루고 있으나 이것은 ‘y-첨가’현상이다. ∅ → y / 이 ---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ㅍ, ㅌ), ㅂ(ㅂ, ㅃ,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뻬]	깍다[깍따]	넋밭이[넋뻬지]
샷돈[샷뻬]	닭장[닭짱]	침범[침뻬]
뻬대다[뻬뻬다]	웃고름[웃꼬름]	있던[일뻬]
꽃고[꼰꼬]	꽃다발[꼰따발]	낫설다[날썰다]
발갈이[발까리]	솔전[솔뻬]	곱돌[곱뻬]
덜개[덜꺨]	옆집[엿집]	넓죽하다[뻬쭈카다]
읍조리다[읍쪼리다]	값지다[갑찌다]	

< 해 설 >

1. 음운론적 된소리되기

- 받침 ‘ㄷ, ㄸ, ㄱ’ 뒤에서 장애음(ㅂ, ㄸ, ㅃ,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이때 받침 ‘ㄷ, ㄸ, ㄱ’은 음절끝소리규칙이 적용된 경우도 해당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x), ㅁ(ㅁo)’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ㄸ,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엎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담고[담:꼬]	젊지[젊: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굽기다
옮기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l’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ㄸ,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께]	핥다[할따]	훔소[훔쏘]
떨지[떨찌]		

< 해 설 >

1.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일 적에 어미의 첫소리 ‘ㄱ, ㄸ,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형태·어휘론적 규칙)

2. 25항에 있는 예들은 규칙의 순서를 달리하면 규칙적인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넓게 → 넓께(된소리되기) → 널께(자음군단순화)
- 넓게 → 널께(자음군단순화) → *널께(된소리되기 적용되지 않음)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ㄸ,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弗素][불쏘]	일시[일씨]
갈증[갈쥁]	물질[물쥁]	발전[발쥁]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썰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 해 설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형태·어휘론적 규칙)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찌게]	갈 곳[갈꼇]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 해 설 >

1.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형태·어휘론적 규칙)
2. 역사적으로 관형사형어미는 ‘-ㄹ’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때 ‘ㄹ’은 된소리부호이다. 예. 돌아갈 길 ~ 돌아갈 꺾. 현대국어에서 관형사형어미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ㅌ, 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속]
술-잔[술짚]	바람-결[바람겅]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밥]
초승-달[초승달]
강-줄기[강줄기]

잠-자리[잠자리]
등-불[등불]

강-가[강가]
창-살[창살]

< 해 설 >

합성어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후두음 첨가 현상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환경이 다르다.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뒤에서 나타나지만, 후두음첨가 현상에 의한 된소리되기는 유성자음 뒤에서 나타난다. 이것도 사잇소리 현상에 속한다.

제7장 소리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꼴닙]
내복-약[배: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갱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뇽]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눌리]	밤-웃[밤:눔]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녘/거: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녕/그똥]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웃 입다[온닙따]	서른 여섯[서른녀섯]
3연대[삼년대]	먹은 엿[머근녘]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 여섯[스물려섯]	1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련]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사잇소리 현상(첨가)>

1. 개념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 이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빨리 끝닫게 하고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 효과의 확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조건인데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예가 많아 뚜렷한 규칙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2. 유형 :

1) 후두음(?) 첨가 :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예) ㄱ. 촛불[초뿔] 시냇가[시내까], 뱃사공[배싸공];

ㄴ. 밤길[밤깁], 촌사람[촌싸람], 길가[길까](경음화와 구별)

2) ‘ㄷ’첨가 :

㉠ 첨가된 사이시옷이 발음되는 현상

예) 촛불[촛뿔], 뱃사공[뱃싸공], 시냇가[시넉까]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ㄴ’으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합성어 경계)

예) 잇몸(이+몸) → (인몸) → [인몸], 콧날(코+날) → (콘날) → [콘날]

3) ‘ㄴ’ 첨가 : 앞말이 받침이 있고, 뒷말의 첫소리가 ‘이’나 ‘y’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

예) 집일(집+일) → [집닐→집닐], 부역일(부역+일) → [부역닐→부영닐]

솜이불(솜+이불) → [솜니불], 물약(물+약) → [물낙 → 물락]

콩엿(콩+엿) → [콩녘] 늦+여름[늦녀름 → 는녀름] , 나뭇잎

<참고> 1. ‘물약 → 물락’은 ‘ㄹ-첨가’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참고> 2. ‘ㄴ’첨가는 주로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지만, 파생어의 구성 성분 사이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환경에서 ‘ㄴ’첨가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 : 파생어의 경계 사이에서 : 헛+일[헛닐], 맨+입[맨닙]

3. 두 단어를 한 마디로 이어서 발음할 때(기식군)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단어경계)

예) 옷 입대[온닙따], 그럴 일이[그럴니리→그럴리리] 할 일[할닐→할릴]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내:까/넋까]	쌈길[새:깁/쌈:깁]	빨랫돌[빨래뜰/빨랜뜰]
콧등[코똥/콧똥]	깃살[기빨/깃빨]	대팻밥[대:패뺨/대:패다뺨]
햇살[해쌀/햇쌀]	뺨속[배쓱/뺨쓱]	뺨전[배쩨/뺨쩨]
고갯짓[고개짚/고갯짚]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뒹마루[뒹:마루→뒹:마루]	뺨머리[뺨머리→뺨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님→베갯님]	깻잎[깻님→깻님]
나무잎[나무님→나무님]	도리깻잎[도리깻님→도리깻님]
뒹뺨[뒹:눈→뒹:눈]	

< 해 설 >

<사이시옷의 발음>

1. 첨가 현상이라는 면에서 보면 ‘촛불[초뿔]’에는 ‘?’(후두음) 첨가가, ‘촛불[촌뿔]’은 ‘ㄷ’ 첨가가 일어났다. 표준발음법에서는 [초뿔]을 원칙으로 하고, [촌뿔]도 허용하고 있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고 그 ‘ㄷ’이 뒤의 비음에 동화되어 ‘ㄴ’으로 바뀐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1) 다음과 같은 음운과정을 경험한다.
나무잎 → 나무입(음절끝소리규칙/ ‘ㄷ’첨가) → 나무님(‘ㄴ’첨가) → 나무님(비음동화)